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 (1차) 회의일시 및 장소: 2019.5.2.(목) 16:30~18:30,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2차) 회의일시 및 장소 : 2019.5.9.(목) 16:30~19:30,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의 심의는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진행 되었으며 1, 2차 모두 모든 심의위원이 지원신청자에 대한 전수검토의견을 작성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1차 서류심의>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지원심의를 총 14명이 지원하였고 1차 서류심사에서 6명의 본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차 심사대상에서 행정결격사유로 제외된 2명의 지원자를 제외한 12명의 지원자 서류를 중심으로 예술역량 및 사업과의 부합성, 연구 및 창작계획의 충실성 그리고 제출된 연구 및 창작물의 성취도를 중심으로 심의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악과 극음악에 비해 융복합 관현악의 지원자가 많았지만 관현악 구성에 한 두 개의 국악기를 사용하는 정도에 그친 편성이 대다수였기에 다양한 소재 확장 및 아이디어 실현이라는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지게 보인다.

제출된 서류상의 지원동기와 아이디어는 다양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다. 다만,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창작 계획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나, 지원의도와 다른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제출된 지원자들의 악보나 자료들이 부실하거나 본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 점 역시 지원자의 일반적인 음악적 역량을 가늠할 수는 있어도, 창작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자의 작곡가로서의 역량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몇몇 지원자들의 경우, 관현악곡을 창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사료되어 그들의 프로젝트에 기대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뮤지컬이나 극음악 분야에서 활동했던 지원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차 PT/인터뷰 심의 및 총평>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 6명의 PT와 인터뷰심사(질의응답)를 통해 4명의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자의 음악적인 역량은 우수하였으며, 아이디어 또한 다양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였다. 대다수 지원자들이 국악기를 이용한 서양음악과의 융합을 시도하였는데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악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

또한 지원사업의 아이디어나 작업계획은 긍정적으로 수립하였으나, 아이디어와 연관된 실질적인 음악적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미흡하였다. 하지만 관현악곡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음악적 소재를 도입하는 시도 등은 긍정적이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창작계획에 대한 명확한 의도 전달에 다소 미흡하였으며, 지원 의도와 관련성이 약한 자료조사를 한 경우나 지원자가 제시한 주요한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막연한 한국적인 요소에 대한 시도는 지원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4명의 최종 선정자들은 자신의 창작 계획에 맞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창의적인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심의위원 일동